

■ 박성화호 7일부터 스페인 전지훈련

“팀 컬러 갖추고 돌아오겠다”

오는 8월 베이징에서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고 사상 처음 메달권 진입을 꿈꾸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의 박성화(53·사진) 감독이 7일부터 시작될 스페인 전지훈련의 목표를 밝혔다. 올림픽대표팀 훈련 멤버 25명은 6일 오후 9시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결의를 다진 뒤 7일 오후 2시 스페인으로 날아간다. 전지훈련지는 2002년 3월 허딩크호가 월드컵 4강 신화의 초석을 다졌던 스페인 남부 라망가에서 17일까지 1차 전지훈련을 하고 인근 마발라로 옮겨 2차 훈련을 한 다음 28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현지에서 16일부터 사나운 간격으로 네 차례 연습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연습경기 상대는 현지에 전지훈련을 오는 러시아 등 유럽 리그 클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톱 강화·MF 보완 실험

다. 본선에 진출한 다른 올림픽대표팀도 일부 요청이 있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성화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우리 팀의 컬러를 입히고, 그동안 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술적 시도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펠 베어백 전 감독의 사임 이후 갑작스럽게 지휘봉을 잡은 뒤 올림픽 최종 예선을 치르느라 제대로 된 팀 컬러를 입히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그는 “중간에 20세 이하 청소년팀에서 5~6명이 올라오면서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 팀이 지향해야 할 본연의 목표를 만들고 팀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포백(4-back)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하

되 기존 4-2-3-1에서 4-4-2로 투톱을 강화하는 전술과 양 측면 풀백의 공격 가담 빈도를 높이는 전략,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 명 두지 않고 미드필더진을 다이아몬드형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도 다양하게 실험해보겠다고 했다. 박성화 감독은 와일드카드(23세 이하 선수 3명)도 이번 훈련을 통해 점 찍어 두겠다고 했다. 정말 와일드카드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선별한 뒤 성인 대표팀에서 선수를 고르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올림픽대표팀은 부상으로 훈련 참가가 어려워진 미드필더 기성용(FC서울), 백승민(전남)을 전후 명단에서 제외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유호준(울산), 왼쪽 풀백 황훈희(성균관대)를 발탁했다. 유호준과 황훈희는 처음 올림픽대표팀에 승선했다. 유호준은 연말 K-리그 신인 드래



프트에서 울산에 1번 지명을 받았고, 황훈희는 올림픽대회에 취약한 왼쪽 측면 요원이다. 새로 박성화호의 테스트를 받는 선수는 수비수 윤원일(제주), 공격수 조영철(요코하마FC), 조동건(성남)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비운의 복서’ 최요삼 사망



3일 오후 장정구(왼쪽) 전 세계챔피언이 품남동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최요삼의 빈소를 찾아 동생 경호씨를 위로하고 있다.

모든 것 다주고 떠났다

간·콩팥·심장 등 장기 말기질환자 6명에 이식

세상에 모든 걸 다 주고 홀출 자유롭게 떠났다. 최요삼(35·승민체육관)은 3일 오전 0시10분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고 심장 주위 대동맥을 묶는 ‘대동맥 결찰’ 절차를 거쳐 사망 신고를 받으며 34년 남짓의 길지 않은 삶을 마쳤다. 최요삼은 그야말로 ‘살신성인’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가족들은 미리 회의를 열고 최요삼의 생전 뜻을 살려 그의 장기를 전국 말기 환자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최요삼의 바람대로 마지막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장시간에 걸친 장기 적출 수술을 통해 최요삼은 폐와 심장, 신장, 췌장, 각막 등 모든 장기를 각종 말기환자 6명에게 아낌없이 주고 갔다. 최요삼의 각막은 각막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간은 말기 간경화나 간암 말기, 신장은 말기 신부전, 신장은 말기 신부전환자에게 전해져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됐다. 뇌사 판정을 받고 3일 오전 0시10분 법적으로 사망한 최요삼 선수의 간을 이식받게 된 C(여·59·장흥) 씨의 아들 설모(27·광주) 씨는 “어제 저녁 9시

쯤 어머니가 이식받게 될 간이 최요삼 선수의 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최선수)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병원비도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최요삼의 간이 어머니에게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조백환 교수(간담췌이식외과)가 집도를 맡은 간 이식 수술은 이날 오전 3시40분부터 시작돼 오전 10시에 순조롭게 끝났다. 최요삼은 이처럼 몸 뿐 만 아니라 많지 않은 재산 전부를 주위에 기증하고 떠났다. 최요삼은 어머니 오순이(65)씨는 아들이 술 담배를 일절 안 했고 운동할 때도 배고파하며 지낼 정도로 돈을 헤프게 쓰지 않았다고 한다. 6남매 중 다섯째였던 최요삼은 대전로 등을 꼬박꼬박 모아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장만해 주고 매달 생활비를 보낼 정도로 착실했다. 조카 10여명에게도 아낌 없이 용돈을 자주 쥐 인기가 높은 삼촌으로도 통했다.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거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는 등 늘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들에게 귀감이 됐다. 최요삼은 결국 장기를 고통 받는 말기 질환자들에게 나눠주고 돈 역시 한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남은 시신만이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할 뿐이었다.

체육훈장 백마장 추서

경기 직후 뇌출혈 증상을 일으켜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간한 최요삼에게 체육훈장 백마장(4등급)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김중민 문화관광부 장관이 곧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훈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볼 스타 윤경신 12년만에 국내 복귀

독일생활 접고 단산과 입단 계약
 핸드볼 스타 윤경신(35·함부르크)이 12년 간의 독일 생활을 접고 국내 코트로 돌아온다. 핸드볼 남자 실업 단산은 윤경신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기간 및 계약금, 연봉 등은 구단과 선수가 합의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희대 입학 첫 해인 1991년 핸드볼 큰잔치 신인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윤경신은 1993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핸드볼큰잔치 득점왕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특급 골킥으로 이름을 날렸다. 1996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독일 핸드볼 분데스리가 굼머스바흐로 진출해

2006년 함부르크로 동지를 옮긴 윤경신은 주전 라이트백으로 뛰며 7차례나 리그 득점왕을 거머쥐고 통산 2천790골을 꽂아 넣어 역대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골프 필리 회원권

골프 필리 시세면허	골프 필리 시세면허
관 주 3,450	관 실배 1,700
남관 주 4,400	관도 1,900
승 주 8,200	도 로양 2,100

상담 문의 (062)351-0095

“창단 후 첫 리그정상 도전”

전남 박항서 감독
 흠피에 신년 인사



이 더해져야만 가능한 것들”이라고 홈팬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또 취임 인터뷰 당시 ‘용광로 같은 축구’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의 표현이 아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진출을 일궈낸 때와 창단 2년 차인 경남 FC를 4강에 올려 놓았을 때 느꼈던 환희와 기쁨을 이곳 광양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맛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 팀에서 쌓은 오랜 코치 경험과 한일월드컵에서의 노하우, 그리고 경남 감독으로 2년간 재직하면서 터득한 지혜를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은 7일부터 정식 동계훈련에 들어가며 25일 해외로 전지 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신임 사령탑인 박항서(48·사진) 감독이 “팀 창단 이래 최초 리그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홈팬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박 감독은 3일 전남 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2008년 저는 새로운 모험에 나서려고 한다”면서 “흥분되고 긴장되는 목표가 눈앞에 있다. 창단 이래 최초의 리그 우승과 FA컵 축구선수권 대회 3연패 도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등 재임기간 중 이뤄내야 할 중요한 숙제들이 놓여 있다”고 밝혔다. 1994년 창단한 전남은 지난 해 FA컵 결승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 사상 처음으로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지만 그동안 K-리그 정규리그에서는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다. 박 감독은 “이런 목표들은 단지 지나코칭스타프, 선수단, 프런트의 힘으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함없이 광양별 관중석을 채워 주시고 TV 앞에서 전남을 연호해 주시는 팬들의 응원

이천수, 푸마와 3년간 10억 스폰서 계약

“대표팀 뽑히면 목숨 걸고 뛰겠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천수(27·페예노르트)가 무자비한 새해를 맞아 이미지 변신과 더불어 허정우호 승선에 대한 강한 의욕을 다지고 나섰다. 이천수는 3일 오전 동작구 신대방동 푸마코리아(대표 이안 우드록) 본사에서 열린 스폰서십 체결식에서 “황상 월드컵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2002년과 2006년에 좋은 결실을 맺었던 만큼 2010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운재, 수원 삼성과 재계약
 3년간·연봉 삭감 조건 수용

프로축구 수원 삼성은 끝까지 이운재(35)와 3년 재계약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은 이번 계약 과정에서 창단 멤버인 이운재가 연봉 액수를 협실화하겠다는 구단

이날 푸마코리아와 2010년까지 3년간 10억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 지원 계약을 맺은 이천수는 “운동 선수는 밖에서 보이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라운드에서 목표를 걸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팀에 뽑히면 목숨을 걸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수는 푸마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선 “네덜란드에 진출한 뒤 아직 끝이 없다. 새로운 기반으로 시작하기 위해 축구화를 갈아신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과 기능의 축구화를 받은 만큼 후기리그에서 반드시 활약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방침을 이해하고 재계약 협의의 연봉삭감에 대한 계약 조건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운재는 “선수 생활을 끝마치는 시점까지 영원한 수원 골키퍼로 남고 싶다”고 재계약 소감을 전했다. 국내 골키퍼 가운데 처음으로 센추리 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한 이운재는 지난 11년 간 K-리그 264경기에 출전했고 ‘베스트 11’에 3차례 선정됐다.



개막전 정상향해 최경주가 3일,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골프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프로연대회 3번홀에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시현 퍼팅 세계 최정상급” 美 ESPN 평가

“일정골퍼” 안시현(24)의 퍼팅 실력이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이 평가했다. ESPN은 3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퍼펙트 골퍼’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가상의 완벽한 골퍼 선수를 그려냈다. 정신적인 강인함, 힘, 승부욕, 정확도, 퍼팅, 허리 움직임, 경기 집중력, 인터뷰 실력,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 등 9가지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조합해 가상의 ‘퍼펙트 골퍼’를 만들어

본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ESPN은 “남자의 경우 우즈의 몇 가지 부분만 조합하면 됐고 여자는 소렌스탐과 오초아를 적절히 섞으면 됐다”면서 “따라서 ESPN 골프 전문가들에게 한 선수는 한 부문에만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단서를 붙였다. 그 결과 안시현은 퍼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가상의 ‘여성 퍼펙트 골퍼’ 퍼팅 부분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